

보도시점 2023. 4. 21.(금) 08:00 배포 2023. 4. 20.(목) 17:00

## 다음달부터 '원스톱 수출 119' 운영 등 수출현장 밀착 지원 강화

-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
- 3분기중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'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' 전시회 개최
- 녹색기술 개발 등 10조원 투자, 녹색전문인력 18만명 양성
- 글로벌 선도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 육성,  
소프트웨어·인공지능(AI) 전문인재 20만명 양성

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.21(금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①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, ②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, ③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, ④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.

\* 참석자 : 경제부총리(주재), 과기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·해수부·중기부·국조실·공정위·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·차관

추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①무역금융, 물류·통관·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, ②반도체, 중국 등 기존 주력 분야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, ③수출품목과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작년 10월부터 무역금융·해외전시회 등 인프라 확충, 반도체·조선 등 경쟁력 강화, 케이(K)-콘텐츠·바이오헬스·방산 등 수출역량 강화, 사우디·아세안·아랍에미리트 협력 후속 조치 계획 등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·추진하며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,

근본적인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.

또한,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, 그 일환으로 오늘 회의에서 수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, 수출 절차 간소화 등 현장애로 해소 방안과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한 해외건설, 녹색산업, 소프트웨어 등 신(新)수출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※ (별첨) 1. 경제부총리 모두발언

2.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

3.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

< 총 괄 >

담당 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재진 (044-21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인환 (044-215-4513)

< 안건별 담당자 >

[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]

담당 부서	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	책임자	팀 장	박선영 (02-6000-5785)
		담당자	사무관	한유빈 (02-6000-5780)
		담당자	사무관	배민우 (02-6000-5775)

[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]
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남철기 (044-202-63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연규 (044-202-6314)
	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혜영 (044-215-4550)
		담당자	사무관	전성준 (044-215-4551)